

#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Welcome to a Reformed Church)

### 서론.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한다. 그 중에서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가? 이들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교회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개혁교회의 삶과 기존의 개신교회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묘사한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은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이 순례의 길을 더 평탄하게 하는 데에 또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

개혁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 (1)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Christianity Church)이다.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 교회다.

#### (2) 개혁교회는 루터교회(Lutheran Church)와 더불어 '개신교 교회'(Protestant Church)이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 (3)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개혁주의교회(Reformed Church)이다.

개혁교회는 개신교의 일파로서, 죄인은 무한한 죄책과 영원한 형벌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획득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정하신 수단(말씀, 성례, 기도[찬양])을 사용하사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 1. 뿌리 - 개혁교회의 역사

개혁교회는 난데없이 나타난 교회가 아니다.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ad100-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기독교교회'이다. 또한 프랑스 사람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한 존 칼빈을 따라 '칼빈주의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혁교회'는 독일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회'와 함께 그 근본이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에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이다. 개혁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지만 강력한 역사적 기초를 가진, 루터파와 구별되는 특정 교리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주의교회'이다.

### (1) 기독교 교회(Christianity Church)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고대교회 보편 신조라고 불리는 1) 사도신경, 2) 니케아신경, 3) 아타나시우스신조, 4) 칼케돈신조의 정의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 신조들을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른다.

- **사도신경:**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조의 사상과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의 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정리되어왔다(ad100-700년).
- **니케아신경:** ad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 **아타나시우스신조:** 초대교회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글에서 발췌한 글들이 ad500-800년 사이에 아타나시우스신조로 아름답게 엮어진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주의 깊게 고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언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세심하게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진술로 시작한다.
- **칼케돈신조:** ad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작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본질적 교리들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고백이다.

### (2) 개신교 교회(Protestant Church)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는 함께 로마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했다. 종교개혁 진영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을 중점적으로 반대했다.

- 성경은 전통과 교황 같은 여러 권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다음의 슬로건으로 항변했다.

### 5 Sola

-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
- 오직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에 의해서만 구원받음
- 오직 믿음(Sola Fide)을 통해서만 구원받음
-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
- 참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만을 위하여 삶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런 저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교회로 사실상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개신교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칭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처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많이 이탈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목회자가 스스로 고안해 낸 가르침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 (3) 개혁교회(Reformed Church)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개신교 진영 안에서 별개의 신앙고백서를 가진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갔다. 처음 개혁교회성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조롱 받았는데, 정작 이들은 스스로를 ‘개혁파 신자’라고 불렀다.

당시 개혁교회는 유럽 전역에 존재했다. 독일어권 스위스 지역의 경우, **울리히 츠빙글리**와 **하인리히 불링거**의 지도 아래 **취리히**에 개혁교회가 있었고, **마르틴 부셔**의 지도 아래 **스트라스부르**에, **요하네스 오이콜람파디우스**의 지도아래 **바젤**에, **베르톨트 할러**의 지도 아래 **베른**에 개혁교회들이 있었다. 프랑스어권 스위스 지역에도 **피에르 비레**의 지도 아래 **로잔**에 개혁교회가 있었고, **윌리엄 파렐**의 지도아래 **뇌샬레**에, **존 칼빈**의 지도 아래 **제네바**에 개혁교회들이 있었다. 동쪽으로는 **헝가리**, 서쪽으로는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개혁교회는 퍼져나갔다. 북쪽으로는 **요하네스 아 라스코**의

지도아래 폴란드에,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와 신학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 올레비아누스**의 지도 아래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도 개혁교회가 있었고 남쪽으로도 퍼져 나가 **북이탈리아 산악 지대의 발도파** 가운데도 개혁교회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삼대 일치신조(Three Forms of Unity)를 고백했다.

- 1)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년)
- 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년)
- 3) 도르트 신조(1618-1619년)

흔히 장로교회로 알려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고백했다.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
- 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1648년)
-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8년)
- 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1645년)과 교회정치(1645)

### 결론

고대교회의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이 바로 개혁교회의 뿌리다. 이러한 신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자체가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뿌리가 역사에 무심하고 우왕좌왕하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안정성을 회복시켜주고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 성숙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2. 신앙고백 - 교리적 토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각 그리스도인들과 개별 교회들이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고 고백하는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선뜻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령이 교회에 어떤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제 재림 하시는 지와 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크게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개혁교회의 신조들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교리들을 믿어왔다. 개혁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또한 고백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 진리로 이해한 것이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라는 공식적 문서에 진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된, 신적 계시의 진리 체계인데, 개혁교회는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가 믿는 것이고 표준 문서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선언해 온 것이다.**

### -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

오늘날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순복음, 침례, 성결, 감리 등등)이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신앙고백적 교회**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회들은 신앙고백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교회들은 '먼 친척'이라는 의미에서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들은 **"우리는 신조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갖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사실 이들 교회들도 자신들만의 '신앙진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정작 전통적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유익하다.

### -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성경적이다.

사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신조와 신앙고백들이 존재한다. [신6:4; 신26:1-11; 마16:16; 고전15:3-4; 엡4:4-6; 딤후3:16 등]

### -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유익하다.

언제나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철학 한 가운데 있어 왔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이고 본질적 진리가 무엇인지 늘 가르침 받았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죄의 종이던 로마인들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회 권징을 위한 공적 표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가르침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때 성경적 화해나 조정 없이 공동체 안에서 임의로 소외 당하거나 출교 당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보호해 준다.

### 결론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이다.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읽어야 한다. 이 짧은 책으로는 개혁 신앙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혁 신앙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현관에 들어서게 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살펴볼 ‘개혁교회’를 ‘개혁교회’ 되게 하는 핵심 요소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성경의 권위
- 하나님이 펼쳐 보이는 언약에 대한 서술로써의 성경
-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속
- 은혜 안에서 성화 과정을 통한 신자의 성장
-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
-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 복음 설교와 성례

### 3. 성경 - 최종적 권위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동등한 권위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통과 성경의 해석이 궁극적으로 교황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레نت 공의회(로마 가톨릭의 종교회의, 1546년)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다.

-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신구약 뿐만 아니라 구전(the said traditions)도 동등한 존경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높인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낳고, 형성하고, 만들어 간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지 그 반대(성경이 교회 위에 세움을 입은 것)가 아닌 것이다.

#### -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성경의 반복적인 명령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경 마지막 책의 절정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22:18-19

-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에 최고의 권위와 궁극적 권위가 있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

### - 계시(revelation)

하나님은 자신을 늘 계시하셨다. 즉,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보이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벨직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선명하고 온전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성경**, 양자 모두를 통해 배우지만, ‘구원에 필수적인’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실로 충격적이게도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교제하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며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 - 영감(inspiration)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3:16) 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오프뉴스토스**’이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선지자와 사도에게 명하사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존되고 열방에 전파될 수 있게 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감 된 말씀은 세 가지 치명적인 대적들인 “세상”, “육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든든히 서게 한다.

### - 정경성(canonicity, 표준성)

세상에는 수많은 거룩한 책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유대교에는 ‘**타나크**’(토라[모세오경], 네비임[선지서], 케투빔[성문서])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 힌두교에는 바가바드기타, 우파니샤드, 베다가 있고, 도교에는 도덕경이 있고, 유교에는 논어가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신구약성경 외에도 “외경”을 인정하며, 개신교는 “신구약성경”만 인정한다. **개신교에 속하는 개혁교회는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오직 “66권으로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믿는다.** 개혁교회는 이런 책들을 정경(the canon)이라고 부른다. 정경이라는 단어는 ‘규칙’ 또는 ‘표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했다. 구약정경은 ad 90년 “암니아 회의”에서, 신약정경은 ad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 권위(authority)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주된 증거는 두 가지이다.

- 1) **성령(Holy Spirit)**께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에 증거
- 2) **성경의 자증성(Self-Authenticating nature)**에서 비롯

#### - 충족성(sufficiency)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이 충분할 만큼 성경 안에 가르쳐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 명료성(perspicuity)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신, 신자에게 권위적이고 충족한 이 계시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perspicuous)하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똑같이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 저곳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통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 결론

오늘날 거의 모든 복음적 개신교 교회가 성경에 대한 앞선 고백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으로, 신적 권위가 있고, 충족하고, 명료하다는 고백이 개혁 교회들의 그리스도인의 실제 신앙 실천과 영위하는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이다.** 쉽게 말해 어떤 교회가 “저희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보여주세요”라고 되물어 보아야 한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의 차원에서 성경의 권위를 보여 주고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개혁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다만 교회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개혁교회는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을 통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이다.**

## 4. 언약 - 하나님 이야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본(script)과 마주치게 된다. 하나님의 대본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추적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자기 죄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망쳐 버렸는지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 내내 자신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되, **극적으로 계시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상태로 만드실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성경을 언약(히브리어 '베리트')이라는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은 개혁신학의 특징이다. 어떤 이들은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고 개혁신의자가 된다는 것은 '언약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4가지의 주요 주제(창조, 타락, 구속, 완성)** 안에서 발견된다.

### - 창조

하나님은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첫 3일 동안에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심으로써 만물이 거할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셨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충만히 채우셨다. 낮을 위한 해, 밤을 위한 달, 바다와 하늘을 채울 생물, 땅을 채울 생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창조의 절정은 6일째의 인간 창조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여 자신과의 언약 관계 안에 두셨다. 아담이 이 언약 법에 순종하는 것에 전적으로 영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계명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였다. 이 계명은 **영원한 죽음**을 명시적으로 경고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내포되어 있었다. 나중에는 구약의 율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레18:5)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있어, 처음의 "행위언약"과 이후의 "은혜언약"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타락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첫 언약의 약정을 깨뜨려,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죽음의 형벌은 완전한 신체적, 영적 죽음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아담의 반역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담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그 결과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스스로 범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아담은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온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로마서 5:12**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이다.

**도르트 신조**는 타락한 인류의 암울한 실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구원에 기여할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악으로 치우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에 종 노릇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성령의 중생시키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본성의 부패를 개혁할 수도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에 내어 놓을 수도 내어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 - 구속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도록 보류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또 다른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를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창3:15)이라고 불렀다.

### ● 은혜언약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언약을 펼쳐 보이시는 드라마로 이해한다. 성경은 일종의 언약 이야기로, 바울은 성경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말했다(엡2:12). 은혜언약의

본질(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은 성경 내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역사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일과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은혜언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서 범위가 확대된다. 구약시대의 은혜언약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모형”과 “그림자”로 묘사한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성전 같은 것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런 모형과 그림자는 모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히1:1)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이다. 낙원에서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시대, 모세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 의식을 통해,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살고, 죽고, 부활했을 때, 은혜언약은 그 정점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 실패한 것을 은혜 언약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 구속언약(창세전 언약)

역사 속의 두 언약, 타락 전에 맺어진 행위 언약과 타락 후에 맺어진 은혜 언약 배후에는 또 다른 언약인 **구속 언약(창세전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기 전,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과 교제를 나누기로 삼위 간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구속 언약은 성경의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맛보도록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킨다. 예정은 신비로운 점이 많고, 예정 교리와 관련해 많은 오해가 흔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예정을 다루는 데 있어 사도 바울식의 태도와 접근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바울은 예정을 거부하지 않고 예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 에베소서 1:3-6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으로서의 선택에 있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 1) 선택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즉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후 결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 2) 선택은 불변하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의 수는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다.

**로마서 8:29-30**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3)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9:11-18**

-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 18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작정으로서, [선택]작정에 의해 하나님은 창조 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쁘신 뜻에 따라, 본래의 올바른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 전체 인류 가운데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자들의 증보자와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다.”

‘선택’ 그 반대편에는 신학자들이 ‘유기’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구속 언약을 통해 성부는 성자가 구속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효하게 부름 받을 자기 백성을 성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성자에게 주신 이들은 절대 인류 전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죄에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지만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최악 가운데 그대로 남겨 두기로 작정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간과하신 자들로서 **“자발적으로 빠진 공통의 비참함에 공의롭게 내버려 둔 자들이고.....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허락된 자들이다”**

**로마서 9:13**과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데 반해,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다.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벰전2:8)**

이에 반감과 거부감을 표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롬 9:20)**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행복한 이들은 바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 완성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연극의 제4막인 종막은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엡1:10)되는 것으로서, 흔히 최종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최종 완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수반된다.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 2)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에 상응하는 자기 몸과 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자신과 영원히 동거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 3)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소망이며,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피조물의 갱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만물의 최종 완성을 ‘새롭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을 처음 창조 때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5)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다.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다. 최종 완성의 때는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종 완성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어메이징한 것이다.

## 결론

창조, 타락, 구속, 최종 완성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 상연된 드라마 대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에 이르는 그 사이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온갖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자기 백성의 지속적인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 5. 칭의 -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 칭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고 "질료인(material cause)"라고 불렀다.

### - 율법의 연약함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칭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르트 신조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 1) 율법은 우리 죄를 보여주고 유죄를 선고하지만, 정작 율법에는 죄에 대한 치료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율법은 죄인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율법은 부패한 우리 속에 있는 죄짓는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바울은 말했다.

### 로마서 7:5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 3)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악 된 본성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 칭의의 실상

칭의 개념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직 은혜(Sola Gratia)**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를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칭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죄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죄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배상 때문이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실 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 - 오직 은혜(Sola Gratia)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칭의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한다.

- 1)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으셨다.
-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셨다.
- 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
- 4)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 - 오직 믿음(Sola Fide)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 ● 성령

최악 된 본래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먼저 주권적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 외에 더 이상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은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것이다.”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 ● 우리의 행함 없이

신약 성경 도처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 행함과 대조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약 성경은 칭의가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믿음이라는 내적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다.

#### ●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구원에 있어 전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친히 이루셔야 했다. 우리 개혁신교회 선배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했는데, 이 구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가 수태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끝 날 때까지, 생각, 말,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신을 낮추셨다.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투쟁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는 '칭의'의 설명 방식이기도 하다.

### 로마서 5:18-19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허용하거나 단순히 당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을 의미한다. Passion은 라틴어 '파시오'(passio)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을 가리킨다. 즉,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 → 만족

그리스도의 이런 순종,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죄인은 몸과 영혼 둘 다 이 땅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 형벌을 모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만족시킨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의 만족을

가능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영단번에 만족시킨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도 남지만 십자가의 효과는 영원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 →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injection)받은 죄인이 그 주입된 은혜에 협력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transfer)함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어떤 것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돌리고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다.

### 결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부르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 6. 성화 -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두 가지 유익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셨다. **첫 번째**는 전장에서 살펴본 **“칭의”**이고 **두 번째**는 **“성화”**이다. “칭의”로 인해 죄책(guilt of sin)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는 죄의 실제적 권세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 가게 하신다”**.

개혁교회는 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건한 삶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추구했다. 다시 말해 개혁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율법주의나 죄책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복음 지향적(관계 지향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 ●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참 믿음은 그 사람을 중생(Born again)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 신자는 이런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선행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새 생명의 특징은 **“감사”**이다.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다.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의 복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이다. 그리고 삶은 행위의 연속이다. 그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삶과 행위의 가이드 라인은 바로 **십계명(율법)**이다.

성화의 출발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칭의와 성화의 관계

개혁신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칭의와 선행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마태복음 7:17-18**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행위들이 믿음이라는 좋은 뿌리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자기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선하고 받을 만한 행위들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는 그 나무의 열매도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한다.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죄 지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욱 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갖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신자가 영위해야 하는 감사의 삶에 기본 구조를 제공해 준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행하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 목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

● 율법의 세 가지 측면

1) 율법의 도덕적 측면(도덕법)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구적인 원리**를 나타내 주는 율법 안의 모든 요소들을 가리킨다.

2) 율법의 의식적 측면(제사법)

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율법의 내용들을 가리킨다.

3) 사법적, 재판적 측면

율법에는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가리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신약시대에 모두 폐지되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측면은 **“도덕법”의 측면**이다. 이는 영원불변한 가치이다.

● 율법의 세 가지 용도

1) 인도적, 교육적 용도 -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

2) 사회법적 시민법적 용도 -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인이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는 차원**에서의 역할: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

3) 교훈적 용도 - 율법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삶의 길잡이로 사용되는 경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그렇게 엄히 명하시 는 것인가?

1)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죄악 된 본성을 갈수록 더 깨닫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로워지도록 성령 의 은혜를 중단없이, 부지런히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사랑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율법은 항상 사랑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받기 이전에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런

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바뀌게 된다. 지금 우리는 참된 섬김과 복된 종 노릇을 위해, 과거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5:13-14**

-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 주기도문**

십계명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본 구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구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한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 1)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
- 2) 우리 자신의 곤궁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엄위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
- 3)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

**결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 단번에 의롭다 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평생 성화된다. 우리 삶은 섬김을 위한 삶이고 섬김에 드러진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

## 7. 교회 -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자신이 다닐 교회를 찾는 것은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온갖 종류와 온갖 형태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종교 소비자들은 원하는 교회를 임의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재세례파, 루터교회, 개혁신교회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은 조직들이 스스로를 교회라 부르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혼란스럽다.

앞서 3장에서 본 것처럼,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가르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 안에 우리를 심어 넣는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열매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자처하는 상황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개혁신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의 본질로 간주한 외적인 표지들과 교회의 건전함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표지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 -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 심지어 개혁신교회 안에서조차 의견 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개혁신교회는 "성경은 분별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어떤 회중이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외적 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확신"에 도달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 안에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죄를 처벌하는 교회 권징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 교회의 3가지 표지

- 1) 바른 복음의 선포
- 2) 바른 성례의 시행
- 3) 바른 권징의 시행

## ●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세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표지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이다. 선포된 복음 없이는 교회도 없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설교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맡기심으로써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셨다. 사도 바울은 칭의 교리를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로마서 10:14-17

-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려면, 목회자는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살펴본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교회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뿐이라네.” 라는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상 두 요소(율법과 복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 반드시 수반된다. 율법은 율법의 엄정한 요구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선포되어야 하며,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율법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로서 선포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가령 믿음에 노골적으로 행함을 더한다거나 ‘신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선포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 성례의 합당한 시행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연약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의심과의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선포라는 들리는 말씀에 성례라는 보이는 말씀을 더해 주셨다. 복음 설교는 믿음을 창조하고 성례는 우리 속에 믿음을 확증하고 굳세게 한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처럼 성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하는 인”이다. 성례를 시행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해야 한다.

- 1) 성례는 두 가지 뿐(세례와 성찬)
- 2)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첨가된 비성경적 의식이나 요소 없이 성례를 시행
- 3)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 받은 목회자가 베풀어야 함
- 4) 세례시에 물을 뿌리든 붓든 물에 잠그든 상관없고,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잠그는 것과 관련해서 목회자는 같은 행동을 한 번 하던 세 번 하던 상관없음
- 5) 성찬이 합당하게 베풀어지려면, 먼저 빵과 포도주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함
- 6)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든지, 앉아서 받든지, 서서 받든지 상관없음
- 7) 성찬 과정에는 성찬 제정 말씀 낭독, 빵을 떼, 감사 기도가 수반된다.

● 교회 권징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교회 권징은 오늘날 문화에서는 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권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둘 다 갖고 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간곡히 권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브리서 13:17)

권징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벌하는” 부정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

하심을 드러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밝히 보여줌으로써, 반항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한다.

## 결론

성실하고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은 설교, 두 가지 성례의 시행, 올바른 교회 권징이라는 세 가지 성경적 표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교회를 찾아낼 수 있다. 지역마다 매우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양떼와 진실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위 목자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훈육과 권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떼들을 친히 목양하시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8. 예배 -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규정한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감사 반응이다.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이 주신 은택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합”으로 묘사했다. 이런 경외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장이 공예배인 것이다.

### ● 말씀과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 안에 대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사도조차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지 우리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된다.

- 1) 주일성수 - 우리 삶의 체계를 세워주는 뼈대
- 2) 하나님을 향한 물질(헌금) 생활의 투명성
- 3) 은혜의 수단에 대한 열심
  - @ 설교, 성경공부, 성례, 기도[찬양]

### 결론

선포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공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의사소통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아버지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 눈높이까지 허리를 굽혀 주셨다. 비록 설교와 성례가 외적으로 휘황찬란하지 않고, 흥미진진하지 않고, 심지어 그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무력해 보일지라도, 설교와 성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이다.